

84년도 메이저 경영 실적

선 도적 국제석유회사들 즉 메이저들의 84년도 年報를 보면, 전반적 판매신장과 더불어 재무결산 패턴이 크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생산량은 셰브론, 모빌, 텍사코등 세 메이저가 각각 걸프, 슈퍼리어, 게티를 합병한데 힘입어 전체 산업 평균을 웃도는 신장률을 보였다. 엑슨이 83년도에 이어 또 다시 미국계 메이저들 중에서 순익 1위를 차지했으며 영국의 BP와 로얄더치 셸이 美国系 메이저들을 압도하는 영업실적과 파운드화에 대한 달러강세의 영향에 힘입어 발군의 소득증가를 기록했다.

美国系 5대 메이저(걸프가 셰브론에 흡수됨에 따라 아모코를 추가했음)의 종합수치로 볼 때 순익 차감액은 108억달러로 83년의 111억달러와 대차가 없다. 엑슨과 아모코가 순익 신장을 나타냈으나, 셰브론, 모빌 및 텍사코 3사가 83년도에 비해 감소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미국계 메이저들의 영업기반은 크게 확장되어 ▲원유와 NGL의 전체매장량이 168억 5천400만배럴로 83년도보다 12%나 증가했으며 ▲원유공급이 1일 790만배럴로 3%, ▲정유 가동량이 하루 980만배럴로 10%, ▲제품판매가 셰브론과 텍사코의 대폭신장에 힘입어 1일 평균 1천236만 7천배럴로 11%가 각각 증가했다. 한편 천연가스 부문에서도 메이저들 간의 합병에다 순수한 시장 수요의 신장세까지 겹쳐 18%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걸프를 인수한 셰브론은 83%의 괄목할만한 판매증대를 기록했다.

1. 아모코

이 조사에 아모코가 추가된 것은 최근 수년간에 걸쳐 나타난 탁월한 영업실적 때문이다. 전신인 스탠다드 오일(인디애나)은 82년 석유산업 전반을 휩쓴 경영불황을 극복함으로써 순익이 셰브론, 걸프, 모빌, 텍사코 등을 앞질렀으며 작년도에는 미국계 메이저 중에서 2위, 전세계로는 엑슨과 로얄더치 셸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비록 영업 외형상으로는 경쟁 메이저들에 뒤지기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광범하게 퍼져있는 상류부문은 국제적 석유회사를 자처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아모코의 84년도 원유·NGL 총 생산량이 하루 84만 9천배럴이었던데 비해 이중 국내에서의 생산이 절반에도 크게 못미치는 40만 9천 배럴이었다는 점으로도 아모코의 해외 지향성은 입증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생산은 샤르자, 노르웨이, 영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집트 등지에서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44만배럴로 83년보다 15%가 증가했다. 현재 탐사계획에는 국내의 멕시코만과 알래스카 지역 그리고 덴마크, 터키 및 아프리카 여러나라 등에서의 해외 유전 탐사가 포함돼 있다.

상류부문이 국제적인데 반해 하류부문은 국내적이라고 하겠다. 제품판매의 고작 12%가 해외시장 판매로 80년대초의 18% 보다도 대폭 감소했다. 아모코가 짚짚하게 순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경쟁이 심한 해외시장진출을 억제하는데서 큰 덕을 보고 있다. 국내에서의 정유가동률이 82%로

84년도 메이저 경영실적

(單位 : 백만달러 (BP, R/D Shell제외) : 1,000B/D)

	Net income a)	Funds from operations	Capital & exploration expenditure b)	Long-term debt c)	Value of fixed assets e)	%return on equity d)	Net crude reserves c)e)	Total crude supply f)	Refinery runs g)	Product sales h)	Natural gas sales h)
Amoco											
1983	1,868	4,130	4,110	3,035	25,805	15.7	2,632	786	933	1,013	2,630
1984	2,183	4,832	4,630	2,565	25,734	17.5	2,618	849	897	973	2,797
% change	+17	+17	+13	-15	-	-	-1	+8	-4	-4	+6
Chevron											
1983	1,590	4,406	3,330	1,008	14,232	11.6	1,954	1,371	1,433	1,715	1,340
1984	1,534	3,991	4,786	12,362	14,349j)	10.6	2,073k)	1,640	2,036	2,441	2,448
% change	-1	-9	+43	+1,126	+1	-	+6	+20	+42	+42	+83
Exxon											
1983	4,978	10,054	8,532	4,669	40,868	17.2	6,478	2,582	3,266	4,085	5,628
1984	5,528	10,829	9,207	5,105	42,776	19.0	6,474	2,370	3,220	4,204	5,918
% change	+11	+8	+8	+9	+5	-	-	-8	-1	+3	+5
Mobil											
1983	1,503	3,724	3,771	5,162	19,878	10.8	2,148	1,337	1,594	2,034	2,580
1984	1,268	3,727	3,600	11,057	25,530	9.2	2,440	1,369	1,620	2,024	2,667
% change	-16	-	-5	+114	+28	-	+14	+2	+2	-	+3
Texaco											
1983	1,233	2,789	3,833	2,098	15,092	8.6	1,840	1,615	1,708	2,274	2,372
1984	306	3,906	3,913	10,489	24,429	7.3	3,249	1,678	2,025	2,725	3,290
% change	-75	+40	+2	+400	+62	-	+77	+4	+19	+20	+39
Five US majors											
1983	11,172	25,103	23,576	15,972	115,875	n. a.	15,052	7,691	8,934	11,121	14,550
1984	10,819	27,285	26,136	41,578	132,818	n. a.	16,854	7,906	9,798	12,367	17,120
% change	-3	+9	+11	+160	+15	-	+12	+3	+10	+11	+18
EUROPEAN GROUPS											
Financial data in million											
British Petroleum											
1983	866	4,587	3,237	3,802	14,519	9.5	4,584	2,406	1,604	2,116	403
1984	1,402	5,734	3,610	4,067	17,803	13.2	4,631	2,621	1,700	2,252	477
% change	+62	+25	+12	+7	+23	-	+1	+9	+6	+6	+18
Royal Dutch/Shell											
1983	2,754	7,691	4,763	6,825	26,341	15.1l)	6,681	3,913	2,927	4,184	5,480
1984	3,648	8,932	5,602	7,193	33,604	16.2l)	7,081	4,503	3,048	4,346	5,723
% change	+32	+16	+18	+5	+28	-	+6	+15	+4	+4	+4

註 : a) Excluding extraordinary gains or losses. b) Excluding acquisitions. c) At year-end. d) Net income as % of average stockholders' equity. e) Million barrels (incl natural gas liquids). f) Own production plus purchases under special agreements (in some cases incl natural gas liquids). g) In some cases incl processing agreements with other companies. h) Million cubic feet/day. i) Excluding Gulf assets held separate during 1984. (Chevron indicates \$13.6bn as the latter's worth at end-1984). k) Excluding Gulf. Chevron's report states that the merger "will nearly double net liquid reserves to about 4 billion barrels". l) Return on average net assets. n. a.=Not applicable.

메이저 평균 76%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휘발유 부문에서는 미국 최대의 공급자임을 자부하고 있다.

2. 셰브론

셰브론의 84년 수지결산은 미국내 기업합병 사상 최대 인수 가격으로 기록된 133억달러의 걸프 합병이 좌우했다. 걸프와의 합병은 84년 5월 1일자로 법정 효력이 발생, 그 이전의 걸프소득 4천만 달러가 가산됨으로써 셰브론의 순이익이 83년보다 4% 감소하는 선에 머무르게 하는데 기여했다. 걸프의 합병은 제품판매 신장률 40%를 비롯, 상·하류 부문 모두에 걸쳐 영업실적을 급진장시켰다.

이러한 실적증가와와는 달리 133억 달러라는 거액의 걸프 매입 자금이 거의 전액 차입에 의존함에 따라 장기부채가 83년말의 10억달러에서 84년말 120억달러까지 폭증했다. 이에 따라 자산 순가(純價) : 부채비율이 83년의 12%에서 48%로 늘어났다. 셰브론은 앞으로 5년 기한부로 자산 매각처분 등으로 48%를 25-30%까지 감축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으며 은행부채를 줄이기 위해 일반 시중 금융시장에서 3-6년 기한의 공채 모집도 하고 있다.

셰브론의 보고서는 두 메이저의 합병으로 인한 지리적, 기능적 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상류부문에서는 석유, NGL 매장량이 40억배럴로 배증할 것이며 멕시코만·서아프리카·영국 북해 등지에서의 생산·탐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류부문에서도 3개의 걸프공장이 추가됨으로써 셰브론은 「미국 최대의 원유정제기업」으로서의 위치가 굳어져가고 있다. 거기다가 걸프의 워렌 페트롤리엄은 셰브론을 NGL 분야의 최대 영업자로 만들어 놓았다.

3. 엑슨

세계 석유산업의 선두주자인 엑슨으로서는 84년이 제품가격 압박에 따른 4/4분기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전년보다 11%의 순이익증가를 기록한 다행스런 한 해였다. 84년 혹자에는 능률성과 생산성 제고에 따른 비용절감이 한몫을 했으며 달러 강세로 인한 달러화 표시가격 해외영업 비용

의 감소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엑슨의 해외영업은 원유생산과 정유가동을 부문에서 전체의 3분지 2, 제품판매에서 73% 정도를 차지할 만큼 특별히 높은 만큼 이러한 달러강세의 이익이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봄을 이룬 합병 열기 속에서도 선두주자로서의 의연함을 고수, 새로운 석유·천연가스 공급원 탐사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경영방침을 계속 밀고나가 개발 시추정 1천725건, 석유순생산 하루 165만 5천배럴 기록과 함께 3년 연속 매장량 증가를 기록했다. 한편 북미에서는 회수방법 제고 프로젝트로 매장량에 1억400만배럴을 추가했으며 알래스카의 새로운 개발프로젝트가 착수됐고 앨라배마에서는 대규모 해저 가스전이 확인되기도 했다.

84년 한해동안 엑슨은 9개국에서 70여개의 유전과 개스전을 발견하는데 참여 또는 주도역할을 했다. 또한 북해와 바스해협의 생산이 절정에 이르고 있고 말레이시아반도 근해의 3개 신규 플랫폼도 생산을 개시, 현저한 생산증대를 이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4. 모 빌

미국의 선도적 독립계 석유회사인 슈페리어 오일을 57억 달러에 매입한 것이 84년 모빌의 하일라이트였다. 이에 따라 모빌의 자산은 28%가 늘어났으나 반면 장기부채는 114%로 배이상 불어났다. 모빌의 슈페리어 합병은 결산상 7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슈페리어의 합병으로 모빌은 탐사면적이 크게 확장되었고 석유와 가스 매장량도 약 10억 배럴이 추가되었다. 상류부문에서 긍정적 특징은 전망이 좋은 멕시코만에서의 활발한 탐사작업과 앨라배마 근해의 가스전 개발이 시작된 것을 들 수 있다. 하류부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부에 페트로민과의 합작으로 추진한 정유·석유화학 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사우디 내에서의 모빌의 역할이 계속 강조되고 있다. 국내에서 플로리다 텍사스 및 아리조나내에 1백여개의 주유소를 매입한 것 외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초대형 주유소들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마케팅 전략의 특색을 말해 주고 있다.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빌은 84년에 급격한 수

익감소를 겪었으며 이러한 저수준의 이윤은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9.2%의 낮은 수익률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현격한 수익감소는 또한 모빌이 벌여온 석유부문의외로의 사업다각화가 지속적인 난관에 부딪치고 있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5. 텍사코

3월 1일자의 게티오일 합병과 4월 1일자로 세브론의 유럽 판매망을 인수함에 따라 텍사코의 지위는 국내외적으로 크게 강화되어 84년이 전환의 해가 되었다. 게티는 캐나다·북해 및 중동지역의 원유매장량을 대거 텍사코에 추가시켰으며 이보다 더욱 중대한 변화는 막대한 미국내 매장량을 추가 시킴으로써 텍사코에 미래의 원료공급기지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텍사코의 미국내 사업실적 신장은 괄목할만한 것이어서 원유·LNG생산량이 하루 69만 8천배럴로 78%나 증가했으며 천연가스 생산은 32억 입방피트로 49%가 늘었다. 미국내 확인 원유매장량은 19억 배럴로 배에 가까운 95%의 증가율을 보였다. 탐사부문에서는 천연가스를 주축으로 수개 유전발견에 성공을 거두었으며 특히 괄목할 점은 고도화된 육상 원유회수 방법으로 텍사코의 국내 전체 생산 중 44%에 해당하는 하루 30만 8천배럴의 생산량이 이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하류부문에서는 24억 달러가 투입되는 정유소 현대화 계획이 완공단계에 있어 연말까지는 고유황 원유의 전환처리가 85%까지 올라가게 된다.

텍사코의 국제적 지위 강화는 지난해 유럽내 6개국에 걸쳐 있는 세브론의 2천800개 판매창구를 인수, 텍사코의 휘발유시장 점유율을 11.8%로 높임으로써 극에 달한 느낌이다. 게티의 합병은 유럽지역의 원유매장량을 거의 배로 증가시켰으며 스코틀랜드 근해의 대규모 유전발견과 발틱해에서의 생산증대 등을 가져왔다. 중동 및 극동지역에서의 사업활동은 주로 아람코와 칼텍스를 통해 하고 있으나 중공, 이집트 등 지역에서는 활발한 자체사업을 벌이고 있다. 84년 하류부문에서 해외 판매가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그러나 텍사코는 지난 해에 75%의 급격한 수익감소를 기록했으며, 게티 오일의 인수 작업으로 100

억달러의 장기부채 급증을 초래했다. 부채부담은 현재로 19억 달러에 이르는 하부자산의 판매로 현저히 감소되어 가고 있다. 시장여건만 풀린다면 사업영역의 확장에 따라 현금 유동량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저수준의 수익률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6. BP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유럽계 메이저들이 미국계 메이저들보다 현격한 경영수지 신장률을 보인중에도 특히 BP는 역사적으로 높은 코스트 수준에서도 62%의 순이익증대를 기록했다. BP는 달러강세가 첩체일로의 유가를 보상하고도 남았다면서 그런중에도 하류부문의 수익은 현지통화 표시 유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BP그룹은 사업의 지리적 확장은 물론 화학, 광물, 기술분야 등에까지 관심을 갖고 사업영역을 넓혀나갔다. 그러나 상류부문의 석유·가스사업이 여전히 주수익원이 되어 있다. BP 보고서는 84년 사이에 석유공급 산지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강조하고 영국 북해, 알래스카 및 아부다비 등의 기존유전으로부터의 생산량에 이집트와 인도네시아 지역 유전의 생산량이 추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BP는 현재 12개국에서 석유 및 가스를 생산중이며 30개국에서 탐사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15개국 내에 새로운 리스를 획득했다. 주 활동지역은 역시 영국 본토의 육상·해저광구와 알래스카, 이집트, 중공, 인도네시아 등이며 노르웨이 국지의 슈피츠베르겐으로부터 브라질의 아마존 해상 광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84년도의 판매량은 광물자원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증가했다. 천연가스·화학약품, 석탄 등 부문은 제외하고 석유판매에서만 세계수요 신장률이 2%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하루 225만 배럴로 6%, 원유가 112만 배럴로 13%가 각각 증가했다.

7. 로얄 더치 셸

로얄 더치 셸 그룹은 석유생산·판매의 신장, 79년 이래 첫 천연가스 판매량의 증가, 화학약품 수

익의 현저한 증대 등으로 84년에 매우 만족스런 결산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84년중 가장 중요한 구조변화는 미국내 셸 오일 조직을 모두 매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인수문제가 법정수송에 묶여 아직까지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하류부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로얄더치 셸은 84년 제품판매량이 BP의 2배이며 액슨을 능가하는 하루 434만 6천배럴로 전년비 4%가 증가했으며 동·서반구 전역을 대상으로 모든 주요제품 판매에서 수익을 올렸다.

84년도의 원유 총 공급량중 순 생산량은 하루 160만 배럴로 전년도보다 7%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구매량이 290만배럴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수익은 모든 수요 생산 지역에서 기록되었으며 새로운 생산지로 이집트와 태국 및 네덜란드 해상이 추가되었다. 생산·탐사지역 모두 BP보다 광범해서 BP가 27개국인데 비해 로얄 더치 셸은 두배에 가까운 51개국으로 그중 24개국에서 석유 또는 가스를 발견하는 성과를 올렸다. *

(P. ECONOMIST)

官 報

동력자원부고시 제85-114호

석유의 수급안정을 위한 석유안정기금운용 관리요령중 개정 고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6조 제 4 항의 규정에서
 하여 고시 제83-16호(83. 6. 30)의 「석유 수
 급 안정을 위한 석유사업기금 운용 관리 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5년 6월 21일
 동력자원부장관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금사용가능액 및 지원내용
 - 가. 기금사용 가능액 : 1,436억원
 - 나. 지원사업 및 지원 금액

사 업 명 세	부 내 용	지원금액	용 자 대 상 자	용자취급은행
1.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	가.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및 시설 의 생산 및 시설설치 나. 에너지절약형 신공정의 도입등	1,436억원	에너지관리공단이 추천하는 실수요자	추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주 : 1) 지원금액 1,436억원에는 1985년 4월말 현재 기추천분중 미집행액 822억원이 포함됨.
 2) 지원금액은 기금운용상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부 칙

-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고시 제85-81호(85. 1. 25)는 이 고시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